

#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Physical Distress of Dual-earner Couples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 하현숙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득성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Ha, Hyun Suk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Kim, Deuk S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esent the relationships between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physical distress of dual-earner couples.

The data collected from 173 couples in dual-earner families in Pusan.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socio-economic status, wives' work time, spouse's emotional support scale,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role conflict scale, psychological/physical distress scal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level of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physical distress were higher among wives than among husbands.
2. Role conflict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level of psychological/ physical distress directly.

3. Wives' psychological/physical distres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role conflict and socio-economic status directly. Wives' psychological/physical distress were affected by wives' work time, husbands' emotional support,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indirectly.
4. Husbands' psychological distres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role conflict and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directly. Husbands' physical distres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role conflict directly. Husbands' psychological/physical distress were affected by wives' work time, wives' emotional support indirectly.

## I. 서론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여성의 취업율 증가이며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라 할 수 있다.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 증가, 노후대책 등의 경제적 이유 뿐아니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기회의 증대,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등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우리사회에서 보편화된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는 구조적으로 기존의 확대가족 내지 핵가족 형태를 취하지만,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한다는 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이나 가족관계 측면에서 새로운 가족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Gerson, 1985; 최규린, 1991).

맞벌이 부부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시간 부족과 함께 여러 가지 역할수행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에 따른 지나친 피로를 경험하며 다양한 역할요구에 필요한 시간, 노력, 에너지 고갈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취업아내가 남편의 가사참여를 기대하기 때문에 남편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역할갈등으로 인하여 피로감이 쌓이고, 여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 역할에 대한 헌신과 성공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어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나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Voydanoff, 1988). 아내의 취업은 부부의 역할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부관계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부의 가족역할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지만 가족역할이 직업역할과 결합된 경우 즉 취업주부의 중다역할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Schwartzberg; Dytell, 1988). 아내취업이 부부결혼생활과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취업주부에 다중역할 수행결과 가족역할 재조직 과정에서 역할과중, 역할기대에 불일치, 시간제약과 에너지 고갈 등이 초래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역할갈등이 증가하고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감소되어 부부관계에 균형이 깨어지게 됨으로서 부부관계의 질과 안정성 그리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맞벌이 부부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아내를 중심으로 아내의 취업으로 야기되는 역할변화와 문제점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부간의 차이나 부부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아내의 취업은 남편의 직장-가족역할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수반하는데 남편은 정서적으로 가정에서의 우세한 그의 지위가 도전받는다는 인식과 오랫동안 전통적 역할에 사회화되어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것이다. 부부의 역할변화는 상호간의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차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내 뿐아니라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역할갈등 정도와 맞벌

이부부가 겪는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의 정도 및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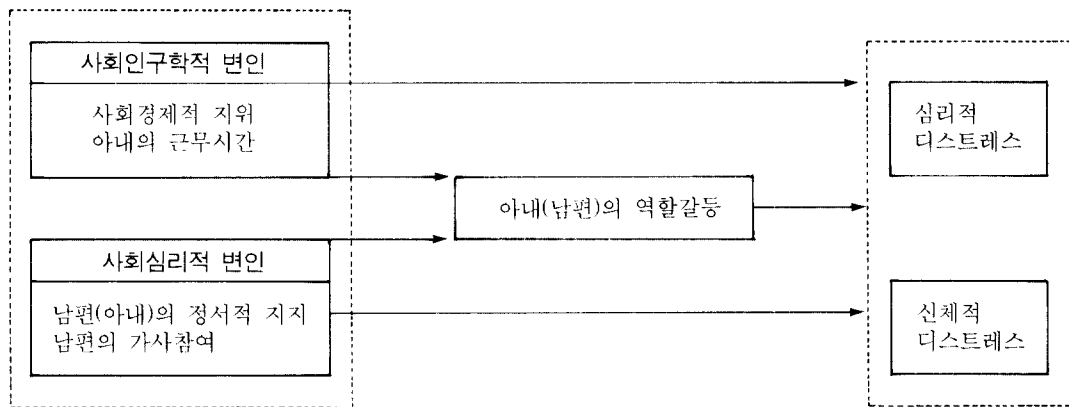
[연구문제 2] 맞벌이부부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직접·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직접·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남편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직접·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때 발생하는 역할과중 등으로 연구자들의 필요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고 서로 엄격한 구분없이 혼용되기도 한다(전영자, 1991).

취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혼자는 근로자, 부모,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런데 각각의 역할에서 요구되는 시간이나 에너지, 몰입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은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할갈등은 일 영역 뿐아니라 가정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두 영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맞벌이부부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가정의 일과 직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중이 보편적인 문제이다. 둘째 전통적 성역할의 사회화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통적 남녀 역할을 기대하는 맞벌이부부에게 근대적 성역할의 병행은 갈



〈그림 1〉 연구모형

## II. 이론적 배경

### 1. 역할갈등

역할갈등은 한 역할의 참여로 인해 다른 역할의 참여가 어렵게 되어 발생하는 역할양립불가능,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동시에 점유하여 이들 역할이나 지위 때문에 성격상 상극 또는 상치되는 개념인 역할방해, 스스로가 조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활동이 규정되어 역할요구에 비해 시간이 너무 적을

등이 되고 있다. 세계 가족주기나 자녀의 유무, 자녀 양육 등 전반적인 생활주기에 대한 계획과 실행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네째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시간이 부족하다. 다섯째 현사회에서 맞벌이부부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상의 불이익 등을 경험한다. 이렇게 맞벌이부부가족은 내적·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Sekaran, 1986).

남편의 직장-가족역할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수반하는 아내의 취업은 아내 뿐아니라 남편의 역할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아내가 취업함에 따

라 아내의 피로, 건강악화, 생활불편이 쌓여 남편에 대한 서비스, 가사일, 자녀양육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남편이 갈등을 느낄 것으로 추정한 연구(이동원, 1976)가 있었고, 남편의 역할갈등은 아내취업에 따른 성문제인지, 부부공동의 여가에 의해 영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최규련, 1993). 외국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가사참여 요구에 대한 아내의 압력, 아내의 의사결정권, 가계부담에 대한 능력으로 아내의 권력증가에 따른 남편의 갈등이 보고되었다(Sekaran, 1986; Kelly & Voydanoff, 1985).

본 연구에서 역할갈등은 여러 역할을 수행할 때 느끼는 시간부족과 시간제약, 두가지 역할양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시간요구에서 일어나는 역할갈등과 한 역할의 참여로 인해 다른 역할의 참여가 어렵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 2.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심리적 복지, 부적응 증상, 우울 등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는 유쾌하지 못한 것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문제거리나 근심 등을 겪을 때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이나 긴장으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로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대인관계 어려움을 포함하고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가벼운 신체적인 증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디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기혼여성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미혼 남녀, 기혼 남성들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ernard, 1982).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을 통해 획득한 지위나 가정내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긴장감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제 심리적 불안, 우울, 긴장 등의 문제로 병원을 찾는 기혼 여성이 일부 있다는 보고(나동석, 1980)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맞벌이 아내나 남편의 역할긴장 및 갈등은 생활 만족도 감소(이연숙 외 3인, 1991), 우울증 증가(Keith & Schafer, 1985)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

구가 있다.

## 3.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내의 근무시간을 선정하였다.

조희선(1991)과 권경희(1985)는 남편의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아내의 취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직접적인 관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반면에 고은숙(1993)은 아내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아내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심리적 신체적 디스트레스간의 일관성있는 연구결과는 없다.

이연숙 등(1991)은 맞벌이 아내의 직장근무시간이 아내의 생활만족도와 갈등 및 부적응 증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내의 근무시간이 역할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고, 아내의 근무시간이 남편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편의 직장근무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 속에서, 아내가 근무에 임하는 시간의 양에 따라 아내 뿐아니라 남편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예견된다.

### 2) 사회심리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남편(아내)의 정서적 지지, 남편의 가사참여를 선정하였다.

이연숙 등(1991)은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남편의 정서적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최규련(1993)은 남편의 지지가 아내와 남편의 우울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Spitze(1988)와 Pleck(1985)은 남편의 지지와 협조가 있을 때 아내

의 우울증은 감소되며 남편의 경우에도 부인의 취업을 지지할 때 우울증이 적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내(남편)의 정서적 지지가 남편(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최규련(1993)은 남편의 가사참여가 남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아내는 남편의 가사참여의 많고 적음 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역할분담의 공평성 정도가 우울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정자(1994)는 남편의 가사참여가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가 아내와 남편의 우울증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Spitze, 1988; Pleck, 1985). 남편에게 가사참여를 더 많이 요구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편이 가사일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여부가 아내와 남편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취업주부의 중다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 또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취업여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취업으로 인한 중다역할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 그리고 취업주부의 중다역할로 인한 역할갈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각 연구자들이 강조점을 둔 변인들의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용면에서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연구들을 고찰하였다.

Voydanoff(1989)는 직업·가정생활 갈등이 전문직과 관리직을 가진 남자들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Burke(1989)는 이러한 갈등이 직업 전향의도와 업무소홀을 유발하고 심리적 복지나 정신·신체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과정을 설

명한 Maureen, Gloria 및 Elizabeth (1991)는 역할갈등이 스트레스 과정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남성의 정신건강의 열쇠는 가정내의 역할에 있다라는 견해가 제안되고 있다(Bird와 Koball, 1991). Pleck(1985)은 남편은 직업 역할보다 가정내의 역할이 심리적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중역할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관계를 연구한 Barnett, Marshall 및 Pleck(1992)은 남성 여성 모두 다중역할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Baruch 와 Barnett(1986)은 이들 역할에 대한 만족과 직장과 가정역할갈등에 대한 지각이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영희(1992)는 맞벌이 부부의 직장과 가정의 역할갈등이 생활의 질을 감소시키며, 이는 심리적·신체적 증상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Coveruan(1989)은 역할갈등은 디스트레스의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며 역할갈등은 남성의 직업만족과 결혼만족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심리적·신체적 증상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중다역할 즉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모두 갖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만(Gove와 Tudor, 1980), 여성에게는 역할과중과 역할갈등의 원인이 되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Barnett와 Baruch, 1985)는 연구도 있다. 그리고 남편이 취업주부에게 정서적 지지와 실제 가사참여를 제공할 때 아내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Sekaran, 1986).

취업주부의 중다역할 영역을 부부역할, 직업역할과 부모역할로 나누어 보면 각 영역에서의 역할수행 또는 역할갈등과 정신건강과는 상호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중다역할로 인해 취업주부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오히려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다 가진 경우 두가지의 중요한 사회관계망에 접하게 되므로 사회적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대안적 원인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중다역할에 관한 연구들은 직업과 가족역할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직업역할을 역할과중과 역할갈등을 일으키는 촉매제로서 또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Barnett

& Baruch, 1985)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이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고은숙, 1993). 남편의 경우 맞벌이 생활에 따른 역할갈등과 자신의 가사참여 정도가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규련, 1993). 즉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직장과 가정용 함께 공유함으로써 겪는 역할갈등은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예비조사는 1993년 11월 15일 유치원 1곳에서 부모들을 표집하고 유아기 및 아동기에 있는 맞벌이부부를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표집하여 60명을 대상으로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척도의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임의표집방법으로 1993년 12월 15일-23일 사이에 부산시내에 위치한 유치원 2 곳과 국민학교 3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해서 각 학교와 유치원을 방문하여 맞벌이부부 가족의 자녀를 확인하고 그들의 부모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들 질문지를 3-4일 후에 다시 회수하였다. 440부(220쌍)를 배부하여 회수된 표본의 수는 총 387부로 회수율이 88%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41 부를 제외한 346부(173 쌍)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녀가 유아기 및 아동기에 있는 맞벌이 부부는 직업활동과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으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과중되는 시기이므로 역할 수행의 어려움이 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 3. 측정 도구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내와 남편의 직업, 소득 및 학력 점수를 합하여 상·중·하위층으로 분류하였다. 아내의 근무시간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8시간 이하, 8시간이상으로 재분류하여 통계처리하였다.

#### 2) 사회심리적 변인

아내(남편)의 정서적지지는 Elman과 Gilbert(1984), 박선희(1992)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배우자가 자신의 직업상의 일에 대한 관심, 격려, 가치인정, 이해, 직업에 관련된 일의 도움제공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계수  $\alpha = .78$  으로 나타났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남편)의 정서적 지지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남편의 가사참여는 남편과 아내가 집안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를 총 100점으로 점수화 했을 때, 남편과 아내의 참여정도를 각각 점수로 적게 함으로써 남편의 실제 가사참여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 3) 역할갈등

역할갈등 척도는 Voydanoff 와 Kelly(1984), Sekaran(1986)과 구혜영(1991)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남편의 총 역할갈등문항은 15문항으로, 신뢰도 계수  $\alpha = .82$ 로 나타났다. 여기서 남편의 역할갈등에만 해당하는 5문항은 맞벌이 생활을 함으로써 남편이 느끼는 가정생활에서의 불편함으로, 내용은 "집안의 문제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적어진 것 같다. 아내가 직장일로 인해 나에게 소홀한 것 같다. 가장으로서 재산 관리권이 감소한 것 같다. 아내의 직장 때문에 성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집안이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아 짜증이 난다" 였다.

아내의 총 역할갈등은 12문항으로 신뢰도 계수  $\alpha = .79$ 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역할갈등에만 해당하는 2문항의 내용은 "가사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

허무감, 매사에 힘듦, 울적함을 느끼는 정도로 구성되었고 불안은 안절부절, 불면증, 신경이 예민해짐, 두려움, 잘 놀라는 정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기분이 상함,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음, 내게 불친절한 것 같음, 남보다 부족한 것 같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언행에 신경이 쓰임, 다른 사람이 못마땅함의 정도로 구성되었다.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식욕이 없음, 심장이 뻐, 허리가 아픔,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남, 머리가 아픔, 소화가 잘 안됨, 식은 땀이 남” 등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요인분석 결과 우울은 7문항으로 신뢰도 계수  $\alpha = .90$ 이었고, 불안은 10문항으로 신뢰도 계수  $\alpha = .94$ 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9문항으로 신뢰도 계수  $\alpha = .87$ 로 나타났다.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10문항으로 신뢰도 계수  $\alpha = .91$ 이었다.

####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PC+ 통계패키지를 이용해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맞벌리아내와 남편의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아내와 남편의 공통 역할갈등 각각 10문항, 아내만의 역할갈등 2문항, 남편만의 역할갈등 5문항을 추가하여 각각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내의 공통 역할갈등 평균점수는 29.5이며 문항평균은 3.0이고, 남편의 평균점수는 25.9이며, 문항평균은 2.6으로서 부부간의 역할갈등은  $P < .001(t =$

5.38)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내가 남편보다 역할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아내만의 역할갈등의 평균점수는 5.4이며, 문항평균은 2.7이다. 남편만의 역할갈등의 평균점수는 11.6이며, 문항평균은 2.3이다. 이상에서 아내의 총역할갈등 평균점수는 35.1이며, 문항평균은 2.9이고 남편의 총역할갈등 평균점수는 37.6이며, 문항평균은 2.5이다. 문항평균에서 알 수 있듯이 3점에 미치지 않으므로 역할갈등이 중간이하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한 구혜영(1991)의 연구보다는 약간 낮은 경향이다. 전체적으로 아내의 역할갈등이 남편의 역할갈등 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내와 남편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3>과 같다.

아내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평균 63.0이며 문항평균 2.4이고, 아내의 신체적 디스트레스의 평균은 23.7이며, 문항평균은 2.4이다. 남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평균 59.5이고 문항평균은 2.3이고, 남편의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평균 21.2이며, 문항평균 2.1이다. 문항평균이 3점에 미치지 않으므로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가 중간이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최동숙(1989)의 연구보다는 약간 낮은 경향이다.

부부간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신체적 디스트레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t = 2.85$ ). 이는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남편에 비해 아내가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최동숙(1989), Voydanoff(1989)의 연구와 일치한다.

#### 2. 맞벌리아내와 남편의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맞벌이부부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을 외생변인으로, 역할갈등을 내생변인으로 그리고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집 단	아 내		남 권	
		빈도	(%)	빈도	(%)
연 령	29세 이하	25	14.5	9	5.2
	30~39세	118	68.2	102	59.0
	40~49세	25	14.5	51	29.5
	50세 이상	5	2.8	11	6.3
학 령	국졸	9	5.2	7	4.0
	중졸	22	12.7	22	12.7
	고졸	57	32.9	47	27.2
	대졸 이상	82	47.4	97	56.1
	무응답	3	1.7		
직 업	전부직	68	39.3	43	25.5
	사무직	26	15.2	44	25.4
	자영업	38	22.2	49	28.3
	단순노동직	30	17.2	32	18.5
	무응답	11	6.3	4	2.4
취업동기	자아실현	53	30.0	40	23.1
	사회보상	8	4.6	12	6.9
	경제적 여유	13	7.5	12	6.9
	활동적 생활	16	9.2	5	2.9
	가정경제	72	41.6	102	59.0
	기타	11	6.1	2	1.2
소 득	49만원 이하	84	24.0	29	8.5
	50~99만원	142	42.3	104	31.0
	100~149만원	91	27.1	129	38.4
	150~199만원	19	5.7	50	14.9
	200만원 이상	3	0.9	24	7.2

직무수행이 소홀해지는 것 같다. 직장과 가정의 책임을 모두 맡아서 항상 지치고 피곤하다” 였다. 공통문항은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중역할과 관련된 역할과중, 역할기대와의 불일치, 역할양립불가능, 시간 제약을 느끼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10 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4)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척도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척도는 한양대 신경정신과 연구팀이 한국판 표준화 도구를 개발하여 정상인의 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만든 SYMPTOM CHECKLIST-90-REVISION(이하 SCL-90-R로 표기함)의 일부분으로 구성하였다. SCL-90-R 지수는 사회적 기능의 수행 능력에 있어서 일반적인 심리적 또는 신체적 디스트레스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의 세영역을 포함하는데 우울은 외로움, 침체감,



〈표 2〉 역할갈등의 일반적 경향

변 인	아 내				남 편			
	문항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문항평균	문항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문항평균
공통역할갈등	10(10~50)	29.5	6.0	3.0	10(10~50)	25.9	5.8	2.6
다중역할갈등	2(2~10)	5.4	1.6	2.7	5(5~25)	11.6	3.6	2.3
총역할갈등	12(12~60)	35.1	7.1	2.9	15(15~75)	37.6	8.2	2.5

〈표 3〉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변 인	심리적 디스트레스	신체적 디스트레스
아 내	문항수(범위)	26(26~130)	10(10~50)
	평균	63.0	23.7
	표준편차	19.4	8.7
남 편	문항수(범위)	26(26~130)	10(10~50)
	평균	59.5	21.1
	표준편차	18.0	8.0
	t 값	1.64	2.85**

\*\* P<.01

분석에 포함된 관련변인간에 다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내의 경우

아내의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역할갈등 ( $\beta=.30$ )과 사회경제적 지위 ( $\beta=-.31$ )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표 4〉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및 내생변인에 대한 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 $\beta$ )	R <sup>2</sup>	상수
심리적 디스트레스	사회경제적 지위	-1.33**	(-0.29)	0.33***	39.08
	역할갈등	1.40**	( 0.49)		
신체적 디스트레스	사회경제적 지위	-0.64**	(-0.31)	0.20***	15.69
	역할갈등	0.38***	( 0.30)		
역할 갈등	아내의 근무시간	0.83**	( 0.26)	0.17***	39.67
	남편의 정서적 지지	-0.40**	(-0.27)		
	남편의 가사참여	-0.09*	(-0.18)		

\* P<.05 \*\* P<.01 \*\*\* P<.001

아내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역할갈등 ( $\beta=.49$ )과 사회경제적 지위( $\beta=-.29$ )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디스트레스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33%였다. 즉 아내는 역할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

적 디스트레스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0%였다. 즉 아내는 역할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신체적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의 역할갈등은 아내의 근무시간 ( $\beta=.26$ )과 남편의 정서적지지 ( $\beta=-.27$ ), 남편의 가사참여( $\beta=-.18$ )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역할갈등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7% 였다. 즉 아내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남편의 정서적지지가 적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가 적을수록 아내의 역할갈등이 많아졌다.

아내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표 5, 그림 2) 역할갈등(.49)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29)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아내의 근무시간(.13), 남편의 정서적 지지(-.13), 남편의 가사참여(-.09)는 역할갈등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내의 신체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각 변인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표 5, 그림 3), 사회경제적 지위(-.31)가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역할갈등(.30)이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며 아내의 근무시간(.08), 남편의 정서적 지지(-.08), 남편의 가사참여(-.05)는 역할갈등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2) 남편의 경우

남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역할갈등 ( $\beta=.57$ )과 남편의 가사참여( $\beta=.16$ )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디스트레스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36% 였다. 즉 남편은 역할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남편의 가사참여가 많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역할갈등 ( $\beta=.44$ )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디스트레스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0% 였다. 따라서 남편은 역할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신체적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의 역할갈등은 아내의 근무시간( $\beta=.17$ ), 아내의 정서적지지( $\beta=-.37$ )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역할갈등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7% 였다. 즉 아내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아내의 정서적지지가 적을수록 남편의 역할갈등이 높아졌다.

남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각 변인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표 7, 그림 4,5), 역할갈등(.57)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남편의

〈표 5〉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의 관련변인 인과효과

관련변인	심리적 디스트레스			신체적 디스트레스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사회경제적 지위	-0.29	-	-0.29	-0.31	-	-0.31
아내의 근무시간	-	0.13	-	-	0.08	-
남편의 정서적 지지	-	-0.13	-	-	-0.08	-
남편의 가사참여	-	-0.09	-	-	-0.05	-
역할갈등	0.49	-	0.49	0.30	-	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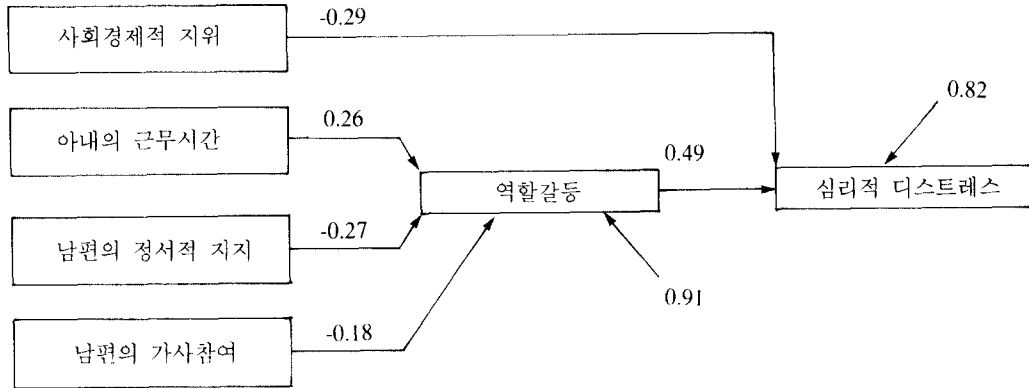
다음 〈그림 2〉와 〈그림 3〉은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경로 분석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는 역할갈등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내의 근무시간, 남편의 가사참여,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역할갈등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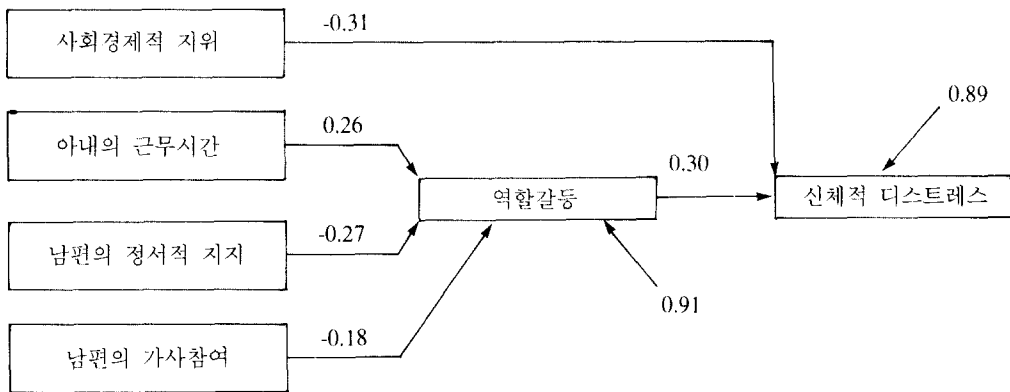
가사참여(.16)가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며, 아내의 정서적지지(-.21), 아내의 근무시간(.01)이 역할갈등을 경유한 간접효과만을 미쳤다.

남편의 신체적 디스트레스에도 역시 역할갈등이 가장 영향이 크고 직접효과(.44)만을 미쳤고, 아내의 정서적지지(-.14), 아내의 근무시간(.07)이 역할갈등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음 〈그림 4〉와 〈그림 5〉은 남편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경로 분석이다.



〈그림 2〉 아내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경로분석



〈그림 3〉 아내의 신체적 디스트레스의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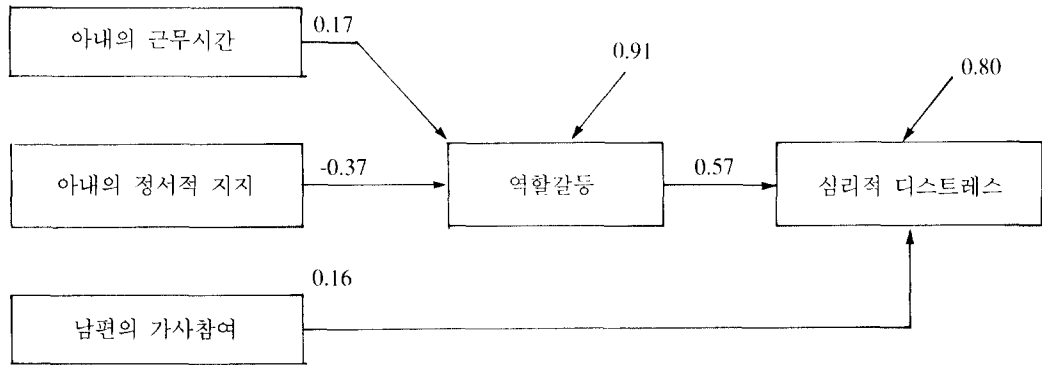
〈표 6〉 남편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 및 내생변인에 대한 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sup>2</sup>	상수
심리적 디스트레스	남편의 가사 참여	0.19*	( 0.16)	0.36***	19.51
	역할갈등	1.31**	( 0.57)		
신체적 디스트레스	역할갈등	0.44**	( 0.47)	0.20**	8.23
역할 갈등	아내의 근무시간	0.74*	( 0.17)	0.17***	44.88
	아내의 정서적 지지	-0.80***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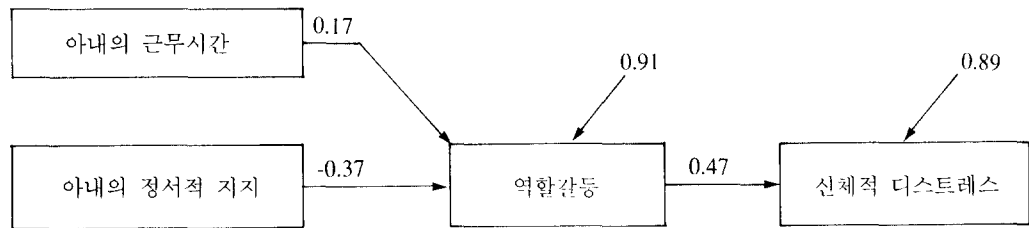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표 7〉 남편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의 관련변인 인과효과

관련변인	심리적 디스트레스			신체적 디스트레스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아내의 근무시간	-	0.01	-	-	0.07	-
아내의 정서적 지지	-	-0.21	-	-	-0.14	-
남편의 가사참여	0.16	-	-	-	-	-
역할갈등	0.57	-	0.57	0.44	-	0.44



〈그림 4〉 남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경로분석



〈그림 5〉 남편의 신체적 디스트레스의 경로분석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는 역할갈등이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내의 근무시간, 아내의 정서적 지지는 역할갈등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남편의 신체적 디스트레스에는 역할갈등이 가장 영향력있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아내의 근무시간, 아내의 정서적 지지는 역할갈등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역할갈등과 이로인한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해 봄으로써 맞벌이 가족의 부부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부부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둘째 아내와 남편의 역할갈등이 많을수록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이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아내는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 넷째 남편의 가사참여는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와 남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남편의 가사참여가 많을수록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는 줄어드는 반면 남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증가한다. 다섯째 아내의 근무시간과 아내(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아내와 남편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즉 아내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아내(남편)의 정서적지지가 적을수록 아내와 남편은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

부부의 역할갈등은 아내가 남편보다 높았다. 이는 최동숙(1989), 고정자(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내는 가정내의 역할수행과 직장에서의 업무가 상충되는 다중역할에서 오는 역할갈등을 남편보다 더 많이 겪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는 아내가 남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결혼생활에 덜 만족하며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 고은숙(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상에서 역할갈등이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정도가 가장 높고 직접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내와 남편 모두 역할갈등이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로 이는 갈등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내의 취업으로 인해 다중역할을 수행한 결과 역할긴장 및 갈등의 증가와 부부간의 상호작용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부부관계의 질과 안정성, 정신건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

과는 고은숙(1993), 최규련(1993), Voydanoff(1989), Burke(1989)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런데 Coveruan(1989)은 역할갈등이 여성의 디스트레스 증상을 증가시키나 남성의 디스트레스는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조희선(1991), 권경희(1989)의 연구와 일치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남편의 가사참여 변인의 경우 성차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아내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에게는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내는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나 남편에게는 영향이 없었다.

또한 남편의 가사참여는 아내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는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는 남편이 가사에 참여할 때 역할갈등이 줄어들어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가 적어지지만 남편은 가사참여가 높을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가사참여가 남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비하여 남편의 신체적 디스트레스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즉 남편의 가사참여는 아내의 역할갈등을 줄이게 하는 변인인데 반해 가부장적인 통념에 젖어 남자는 가사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 생활에서 요구되는 남편의 가사참여는 남편에게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 실제로 남편은 신체적으로 피곤하거나 힘들 정도로 가사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디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Zick, Rubbin(1983)은 취업주부를 둔 남편들 중 역할분담에 협조하지 않는 남편에게 높은 불안과 낮은 정신건강 상태가 보고된다고 하였다. 최규련(1993)은 남편의 가사참여가 남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아내는 남편의 가사참여의 양보다

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역할분담의 공평성이 우울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외 아내의 근무시간, 아내(남편)의 정서적지지는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아내(남편)의 정서적지지가 낮을수록 아내와 남편의 역할갈등이 증가하고 이 증가된 역할갈등을 경유하여 아내와 남편이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내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아내와 남편이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아내의 근무시간이 아내의 생활만족도와 갈등 및 부적응 증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한 이연숙(199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내(남편)의 정서적 지지가 적을수록 아내와 남편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높아졌다. 이는 이연숙(1991), Spitze(1988), Pleck(1985)의 연구와

일치하나 최규련(1993)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와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맞벌이부부 생활에서의 역할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맞벌이부부의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부 스스로가 가정생활상의 여러 문제들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며 자녀가 유아기 및 아동기에 있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모든 맞벌이 부부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이 가장 많은 가족생활주기에 초점을 두었으며, 아내의 취업으로 야기되는 남편의 역할갈등을 아내의 역할갈등과 함께 다루어 맞벌이 아내와 남편을 함께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록 1〉

〈표 1〉 아내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내생·외생변인간의 상관계수

	아내의 근무시간	사회경제적지위	남편의 정서적 지지	역할갈등	남편의 가사참여
아내의 근무시간	1.00				
사회경제적 지위	-.24*	1.00			
남편의 정서적 지지	-.08	.41**	1.00		
역할갈등	.25*	-.11	-.29*	1.00	
남편의 가사참여	.17	-.32**	.08	-.14	1.00
심리적 디스트레스	.12	-.29*	-.23	.51**	-.04

\* p<.01 \*\* p<.001

〈표 2〉 아내의 신체적 디스트레스 및 내생·외생변인간의 상관계수

	아내의 근무시간	사회경제적지위	남편의 정서적 지지	역할갈등	남편의 가사참여
아내의 근무시간	1.00				
사회경제적 지위	-.22	1.00			
남편의 정서적 지지	-.08	.41**	1.00		
역할갈등	.25*	-.12	-.30**	1.00	
남편의 가사참여	.16	-.31**	.05	-.15	1.00
신체적 디스트레스	.18	-.30**	-.14	.33**	.06

\* p<.01 \*\* p<.001

〈표 3〉 남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내생·외생변인간의 상관계수

	아내의 근무시간	사회경제적지위	아내의 정서적 지지	역할갈등	남편의 가사참여
아내의 근무시간	1.00				
사회경제적 지위	-.25*	1.00			
아내의 정서적 지지	-.13	.10	1.00		
역할갈등	.22	-.08	-.35**	1.00	
남편의 가사참여	.05	-.28*	.13	-.00	1.00
심리적 디스트레스	.09	-.16	-.18	.56**	.18

\* p<.01 \*\* p<.001

〈표 4〉 남편의 신체적 디스트레스 및 내생·외생변인간의 상관계수

	아내의 근무시간	사회경제적지위	아내의 정서적 지지	역할갈등	남편의 가사참여
아내의 근무시간	1.00				
사회경제적 지위	-.25*	1.00			
아내의 정서적 지지	-.11	.13	1.00		
역할갈등	.20	-.10	-.36**	1.00	
남편의 가사참여	.07	-.30**	.14	.02	1.00
신체적 디스트레스	.05	-.13	-.12	.42**	.11

\* p<.01 \*\* p<.001

## 〈부록 2〉

〈표 1〉 남편의 역할갈등의 요인분석

	시간 갈등	긴장 갈등
집안의 문제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적어진 것 같다.	.74	-.10
아내가 직장일로 인해 나에게 소홀한 것 같다.	.69	.19
가장으로서 재산 관리권이 감소한 것 같다.	.68	.05
아내의 직장 때문에 성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	.64	.06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다.	.62	.22
집안일 때문에 직장동료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61	.17
집안이 지지분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아 짜증이 난다.	.56	.13
현재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능력과 지식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50	.13
아내의 직업 때문에 직장일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50	.07
아내의 직업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48	.06
사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것 같다.	-.01	.80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것 같다.	-.04	.76
직무수행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 아내의 요구에 소홀해 진다.	.17	.69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23	.60
직장과 가정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45	.53
고유치	4.5	1.9
공동변량(%)	30.1	13.1

〈표 2〉 아내의 역할갈등의 요인분석

	시간 갈등	긴장 갈등
사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	.81	-.07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72	.07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	.66	.22
직장과 가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64	.40
남편의 직장 생활에 대한 내조가 부족한 것 같다.	.56	.13
집안일 때문에 직장동료와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1	.09
가사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소홀해지는 것 같다.	.02	.74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09	.71
직장과 가정의 책임을 모두 맡아서 항상 지치고 괴롭다.	.45	.62
남편의 직장일로 직장일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02	.60
직장에서 나의 능력과 지식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16	.56
나의 직업 때문에 남편과 사소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17	.52
고유치	3.7	1.6
공동변량(%)	31.2	13.6



【참 고 문 헌】

- 1) 고은숙.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원, 내적 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993.
- 2) 고정자.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1994.
- 3) 구혜영.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4) 권경희.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5) 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순재. 기혼취업여성 이 지각하는 가정·직장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91. p209-224.
- 6) 임정빈·정혜정.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986.
- 7) 전영자.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91.
- 8) 조희선.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9) 최규련.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993.
- 10) 최동숙.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989. p165-179.
- 11)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1986.
- 12) Alex, J. Z. & Amy, B. W., Coping Success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Distress for Older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1991, p801-810.
- 13) Barnett, R. C & Baruch, G. K.,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9, 1985, p135-145.
- 14) Brian, F. P. & Margaret, M. P. & T. Neal Garland., Scales for Investigation of the Dual-Career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0.
- 15) Derogatis, L., Rickels, K. & Rock, A., The SCL-90 and the MMPI : A step in the validation of a new self-report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28, 1977, p280-283.
- 16) Greenhaus, J. H., The Intersection of work and family roles :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organizational Issues. In E.Goldsmith (ed.) Work and Family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3, 1988, p23-44.
- 17) Hester, S. B. & Dickerson, K. G., Dual Career Families : The Stress and the Reward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73, 1981, p29-33.
- 18) Keith, P. M., & Schafer, R. B.,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both spouses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1983, p877-884.
- 19) Kelly, R. F. & Voydanoff, P., Work/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Vol 34, 1985, p367-374.
- 20) Linda, B. T. & Camille, B. W. & Geraldine, D. & Carol, E. & Monica, B. & Eric, L., Women with Multiple Roles: Role-Compatibility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2, 1990, p63-72.
- 21) Linda, S. R. & Sharlene, A. W., Personal Goals and Interpersonal Support and Hindrance as Factors in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5, 1988, p293-301.
- 22) Mary, J. V. & Samuel, A., The Stress of Multiple

- Roles : The Case for Role Strain Among Married College Women. *Family Relations*, Vol 31, 1982, p131-138.
- 23) Maureen, G. G & Gloria, W. B & Elizabeth, H. K.,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3, 1991, p151-164.
- 24) Patricia, V. & Brenda, W. D., Work and Family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1, 1989, p923-932.
- 25) Pat, M. K. & Robert, B. S.,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Both Spouses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3.
- 26) Pat, M. K. & Robert, B. S., Work and Well-Being in One-and Two-Job Families. *Relationships and Well-Being Over The Life Stages*. 1991.
- 27) Rosalind, C. B. & Nancy, L. M. & Joseph, H. P.,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4, 1992, p358-367.
- 28) Rosalind, C. B. & Grace, K. B.,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9, 1985, p135-145.
- 29) Sekaran, U., Dual-Career Families : Contemporary Organizational and Counseling Issues. In San Francisco & London(eds) : Jossey-Bass Inc. 1986.
- 30) Voydanoff, P. & Kelly, R. F.,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6, 1984, p881-892.